

“마사회, 입장객수 과대·부적절 입찰 등 비위 있었다”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 “서울 테마파크 사업 내부감사때 관련자·운영사 고발 검토 처분”



한국마사회의 서울 테마파크 '위니월드' 조감도.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입장객수 과대평가·입찰업무 부적절 사례 등이 있던 것으로 최근 감사결과 드러났다.

3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에公示된 마사회 내부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2016 서울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 실태의 적정성' 감사결과 당시 업무관련자와 운영사 고발 여부 검토를 요구하는 처분이 내려졌다.

감사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 테마파크 조성사업 업무 부적절과 관련해 2회에 걸친 사업타당성 용역

시 입장객수 과대평가로 사업성 평가가 부적절했고, 사업전반에 특정업체가 관여, 설계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평가위원회 구성이 부적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약업체로 하여금 특정업체와의 협업(하도급)을 요구하거나, 테마파크 운영사업자 선정 시 특정업체에 유리한 공모조건을 구성해 부적절한 입찰업무를 진행했다.

아울러 테마파크 소송 관련 내부문서 등 정보유출 의혹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징계 1건, 경고 2건, 통보 3건 등 총 6건의 감사 처분이 내려졌다.

특정 감사를 통해 직원을 성희롱한 2급 직원에게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감사 처분 사항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해당되는 부적절한 언동을 한 사실이 있어 '취업규칙' 제3조(준수의무), '윤리강령'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및 '한국마사회 임직원 행동강령' 제35조(성희롱 금지)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한, 마사회 내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활용이 미흡한 점도 지적돼 성희롱 사건에 대해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조사 필요 여부 판단결과에 따라 조사가 개시되도록 하는 등 성희롱 사건 처리절차를 명확하고 합당하게 제

정비하기 바란다는 권고 처분을 받았다.

한편, 마사회는 지난 2016년 10월 '위니월드'라는 이름의 말 테마파크를 개장했다. 말 체험과 롤플레이(상황을 설정하고 어린이가 체험을 통해 역할을 학습하는 교육법)가 결합된 색다른 개념의 테마파크인 위니월드는 약 7972㎡ 부지의 7개 테마존을 여행하며 롤플레이 체험, 말 체험, 공연, 야외 활동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여기에 신문사, 소방서, TV 스튜디오, 병원, 은행 등의 체험 공간을 통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배워볼 수 있는 '뉴타운'부터 목공예, 보석공방, 파티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아트 플라자', 1950년대 미국 복고풍 분위기의 '머스탕', 해양 연구소, 항공우주 연구소, 로봇 연구소로 둘러싸인 '사이언스 빌리지' 등 다양한 체험 공간이 조성돼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산업부, 내포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선포 3일 오전 충청남도 도청에서 신정식 남부발전 사장(왼쪽부터), 박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양승조 충청남도 도지사,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 등이 '내포 열병합발전소 청정연료 전환' 공동추진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장병 걱정 1위 '제대 후 먹고살기'

중진공 장병 811명 대상 설문 취업 41%·창업 10% 일자리 고민

우리나라 청년 장병 두 명 중 한 명은 군 제대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고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달 6~17일 까지 육군 31사단 청년 장병 8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지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4%가 제대 후 취업이나 창업 등 일자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3일 밝혔다.

제대 후 희망 진로로는 학업(43.3%), 취업(41.3%), 창업(10.1%), 기

타(4.8%) 등 순으로 꼽혔다.

취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이 꼽은 '일하고 싶은 기업 유형'은 공공기관(27.3%), 대기업(21.9%), 중소기업(21.2%), 기타(14.5%), 외국계 기업(13.5%) 등 순으로 나타났다.

장병들은 회사를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사항에 대해선 급여와 복지수준(36.7%)을 가장 많이 지목했으며 적성과 전공의 업무 관련성(24.1%), 근무조건과 작업환경(23.0%), 장래성과 발전가능성(10.7%), 사회적 지위나 직장 이미지(3.4%), 기타(1.3%) 등 순으로 답했다.

중진공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 장병 취업대책의 하나로 전국 16개

기업인력 애로센터에서 '청년 장병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의무 복무 중인 청년 장병에게 ▲찾아가는 취업상담을 위한 취업 희망 버스 운영 ▲전국 5개 연수원을 활용한 분야별 직무교육과 현장체험 제공 ▲상시 취업매칭 등을 지원한다.

장병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사업 개선과 교육 과정 개발을 위해 보조금 등 정부지원(24.7%),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22.5%), 우수한 구인 중소기업 확보해 대량의 구인기업 데이터베이스(DB) 제공(19.1%) 등을 요구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중앙회-IBK경제연구원 CEO '혁신성공사례집' 발간

중소기업중앙회와 IBK경제연구소는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 인터뷰로 구성된 혁신성공 사례집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것이 혁신기업이다' (이미지)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

사례집에는 기존의 '롤 베이스' 방식에서 벗어나 '러닝 베이스' 방식을 도입한 머신비전 솔루션을 개발해 제품혁신을 이루어낸 '수아랩'의 송기영 대표, 담당자가 24시간 내 의견을 제시하거나 결정하지 않으면 곧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전자결재 과정 구축을 통해 조직의 비효율을 줄이고 조직문화혁신을 완성한 '서울F&B'의 오덕근 대표 등 총 32개 중소기업의 혁신성공 팀이 담겨있다.

제1장 '성공사례모음'에서는 인공지능(AI), 블록체인 기반기술을 적용한 혁신과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혁신, 제조와 서비스를 융합하는 서비타이제이션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 '현장발굴과제'에선 산업경쟁력 관점에서 혁신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나 규제를 신속하게 풀어주기 위한 제도에 중소기업 CEO의 현장 목소리를 담았다.

'백문(百聞)이 불여일견(不如一見), 이것이 혁신기업이다'는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행복한중기씨)에 확인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주금공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신용회복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절차 완료 후 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파산면책결

정 확정자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변제 채무 완제 후 면책 받은 자로 변제계획인 가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 상품의 보증한도는 최대 4500만원이다. 보증료는 일반전세자금보증보다

0.1%포인트 낮춰 연 0.05~0.15%가 적용된다. 또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신용평가를 생각해 보증신청 요건을 완화했다.

주금공 관계자는 "신용회복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면책결정을 받았지만 낮은 신용등급으로 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자에 대해서도 정책보증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김희주 기자 hj89@

노사발전재단 개도국 공무원 초청 글로벌 연수 실시

노사발전재단은 이달 22일까지 3주간 개발도상국 고용·노사관계 담당 고위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사상생 지원을 위한 정부역량 강화' 초청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ODA(공적개발원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7개국(나이지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라오스, 베트남, 부룬디, 스리랑카, 키르기스스탄)의 노사관계 담당 정부부처 고위급 공무원 18명이 참석한다.

글로벌 초청연수는 2016년 실무자급, 2017년 중간관리자에 이어 올해 고위급대 상으로 3년 동안 진행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우분 중앙대 개교 100주년 기념 우표 발행

교내서 가장 오래된 '영신관' 담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 총 72만장을 3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하는 기념우표에 소개하는 '영신관'은 1937년에 지어진 중앙대학교 최초의 석조건물이다. 임영신 중앙보육학교장이 미국으로 직접 건너가 사회지도층의 도움을 요청해 지었다. 중앙대학교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의미 있는 건물이라고 우분 측은 설명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일제 강점기를 지나 6·25, 4·19, 민주화 시대를 거치며 민주주의의 실현과 대학의 가치를



중앙대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우표. /우정사업본부

지키는데 앞장서 온 중앙대학교의 100년, 그 의미를 바탕으로 중앙대학교가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04 | 해짐 / 18:57

9월 4일(화) 음력 : 7월 25일

수도권 날씨 29 ~ 22°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19/28, 동두천 20/29, 가평 19/28, 파주 19/29, 서울 22/29, 양평 21/29, 인천 22/28, 수원 21/27, 용인 21/27, 평택 21/29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